

태국 농업 주요 현안 및 농업 정책

* 작성처 : 방콕 aT

□ 태국 농업 주요 현안

1) 낮은 교육 수준

- 농업 인구의 교육 수준이 초등졸 이하의 문맹자가 71.23%에 달하며 문맹자가 40% 이상에 이름
- 낮은 교육 수준으로 농업 기술 선진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전문가양성이 어려움

[농업인구 교육 수준]

학 력	초등졸 미만	초등졸업	중학교	고등학교	전문학교이상	전체
인구	4,802	3,810	1,732	1,325	422	12,090
분포(%)	39.72	31.51	14.32	10.96	3.49	100.00

(단위 : 천명, 자료원 : 태국통계청)

2) 노동력 감소

- 2013년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300밧을 적용을 시행하고 있어 지방 노동력의 특정 산업지역 집중화가 줄고 있으나 도시 생활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노동자들이 도시 지역 고소득 직종에 집중하고 있음
- 특히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동력 또한 감소하고 있음

3) 천혜의 자연 조건 및 재래식 영농

- 천혜적인 자연 및 기후 조건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수경 농사 및 밭농사를 동시에 경작할 수 있고 1년에 3모작 경작할 수 있음
- 한 경작지에서 쌀, 땅콩, 고구마 등을 번갈아 1년에 3번씩 경작할 수 있음
 - 쌀과 같이 농수가 필요한 작물은 우기를 전후하여 1-2모작 경작 가능함

- 중부지역은 관개수 공급이 잘 되어 있어 연간 쌀만 3모작 경작하고 있음
- 재래식 영농법이 유지되고 있어 생산 단가가 높음
 - 연간 생산 공급되는 농산물이 수요보다 많으므로 정부에서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영농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음
 - 농민들도 선천적인 낙천적 성격으로 신기술 도입이나 개발 등에 소극적임

4) 농가 저소득 및 부채 문제

- 태국통계국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세대별 평균 수입이 330,588บาท으로 지역별 및 산업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며 농가 수입은 평균의 16.5% 수준으로 빈곤층에 해당함
- 특히 전체 농가의 49.2%가 소득보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으며 2011년 잉락 정부는 쌀수매가 현실화, 농가부채탕감 또는 부채상환연기 등의 정책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였으나 정부의 고가 수매로 인한 정부 예산 남용 문제로 잉락 전 총리가 재판에 회부 중이며 농가 부채 문제는 아직도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 있음

5) 제도적 문제

- 산업 발전을 위한 명확한 방향 및 목표 부족
- 효율적인 생산관리 부족
- 생산, 관리, 유통시장에 대한 시장 정보 및 규제에 관한 정보가 부족
- 생산자와 제조업자간의 연결 시스템 부족
- 식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 부족

□ 태국 농업 주요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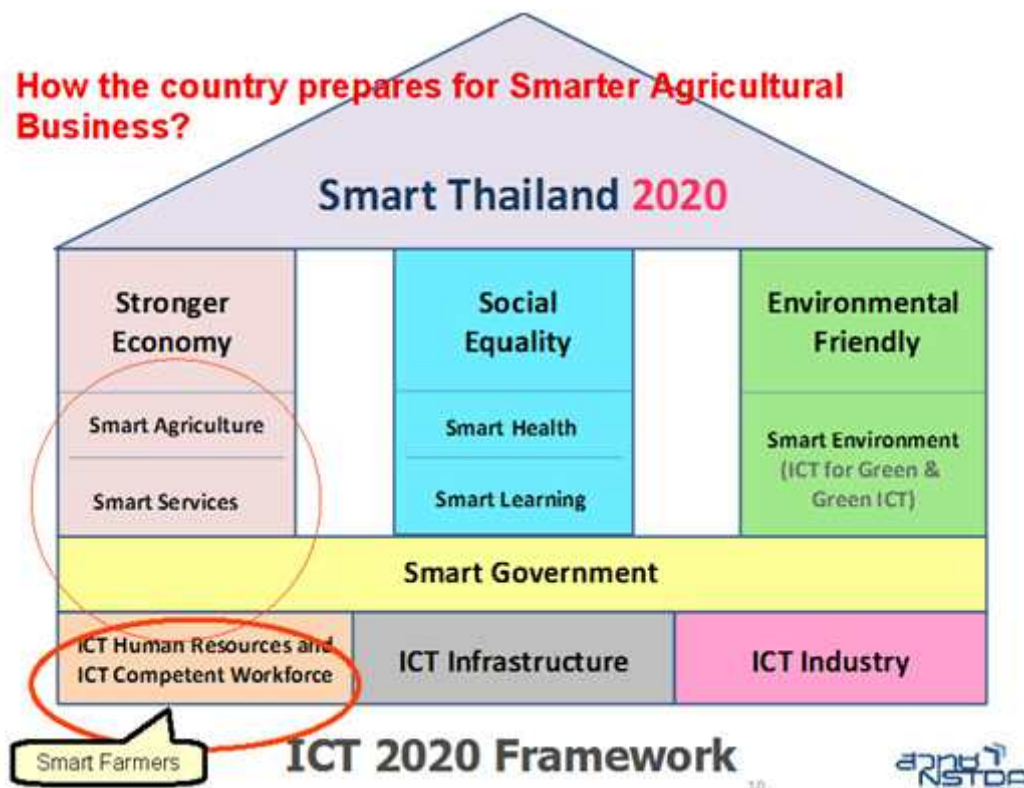
-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을 활용하는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관광시장과 연계하여 수출화하고자 Smart Farm 정책을 추진

[Smart Farm 정책]

- 기본 목표 :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

- 농민의 고령화, 영농기술 전문가 부족, 노동력 감소, 높은 생산비용 등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장의 세계화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과학기술개발원이 주체가 되어 산하 국가전자통신기술원, 농업 관련 정부 부서, 왕실수로국, 영농 단체 및 대학 등이 협력하고 있음
- 농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IT 및 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Digital Agriculture 구현
- 필드서버(field server)를 이용하여 영농 작업을 데이터화하여 관리 및 개발하여 농산물 출고 및 재고 유통 관리 및 정보 제공

[Smart Farm 정책 개념도]



(출처: NSTDA)